

<http://www.kimhakcheol.com>

김학철문학연구 제3집

김학철론 · 젊은 세대의 시각



연변인민출판사

<http://www.kimhakcheol.com>

김학철문학연구 제3집

김학철론 · 젊은 세대의 시각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조롱남

책임교정: 우송희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金学铁论:年轻一代的视角/金学铁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9

(金学铁文学研究: 3)

ISBN 7-80698-778-9

I. 金... II. ①金... ②全... III. 金学铁-文学研究-文集-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06. 7-53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6) 第 115053 号

金学铁论·年轻一代的视角

金学铁文学研究会编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 363 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26.375 字数: 750 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778-9/I·116(民文)

版次: 2006 年 10 月第 1 版 2006 年 10 月第 1 次印刷

印数: 1-1000 册

定价: 29.50 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태향산록 (사진편)

제 1 부 (유작편) 길이란 본래 없었다

전적지에 얹힌 사연/03

죄수복에 얹힌 사연/07

연극에 얹힌 사연/14

승고한 인상/19

길이란 본래 없었다/23

황설수설/29
이른바 삼천궁녀/36

제 2 부 (논문편)

걱정의 인생, 걱정의 문학

김학철산문연구/ 최미옥/51
김학철장편소설연구
—작중인물의 현실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리향순/121

김학철의 《격정시대》 연구

—작가의 력사의식과 작품의 통일성/ 최송월/211

김학철수필연구/ 전정옥/251

김학철의 장편소설 《격정시대》 / 김춘련/367

김학철의 《격정시대》 연구/ 전 화/411

김학철소설의 언어기교연구

—장편소설 《격정시대》를 중심으로/ 강 영/527

김학철문학연구

—조선의용대 항일투쟁사의 문학화/ 모리 아끼라/571

1940년대 연안체험형상화 연구

—《항전별곡》, 《노마만리》, 《연안행》을 중심으로/리해영/639

부 록

김학철년보/777
김학철수필목록/787
조선의용군을 찾아가다/803
해외보도자료/817
중국문단이 보는 김학철/833

제1부 유작편

길이란 본래 없었다

전적지에 얹힌 사연

《먼곳에서 온 편지》

××동지

주신 글월 반가이 받아보았습니다. 열정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께서 그려보내주신 귀현의 략도에서 저는 40년전 항일의 봉화가 타오르던 원씨(元氏)현의 흙냄새를 맡는것 같습니다.

항일전쟁시기 우리 조선의용군은 무한에서 건립되었습니다. 1938년 가을이었습니다. 그후 우리는 태항산 항일근거지에 전입하여 산서성 동육(桐峪)에 총지휘부

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동육은 팔로군총사령부소재지였습니다.

1951년 가을, 우리 분대 약 30명 대원들은 원씨현 경내에 진입하여 팔로군부대와 협동작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남좌거리의 적군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전투를 하고 밤에는 적군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적군의 포대에 접근하여 대적군선전공작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본말에 능통하였으므로 그것이 가능하였습니다.

1941년 12월 11일, 적군은 선웅체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즉시 팔로군의 한개 대대와 함께 치열한 방어전을 벌임으로써 적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가장에 옮기어 숙영하였습니다. 이튿날 즉 12월 12일 새벽, 적군의 대병력이 우리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가피적으로 일장의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4명의 조선의용군용사가 젊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손일봉(孙一峰) 28세,

박철동(朴哲东) 26세,

한청도(韩清道) 27세,

왕현순(王现淳) 24세.

이밖에 중상자 둘, 경상자 둘이 났는데 저도 그중의 한사람입니다.

귀현 당사판공실의 초청을 두번이나 받고서도 신체 조건에 놀리고 또 나이에 놀려서 원씨땅에 묻힌 옛전우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이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12일은 호가장전투 40돐입니다. 귀현의 땅속에 묻혀있는 그들은 저의 가슴속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귀현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바입니다. 그래야 우리 전우들의 피가 헛되이 흐
른것으로 되지 않겠기에 말입니다.

귀현의 변영과 《백화원》의 만발을 축원합니다. 귀현
인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김학철

1981년 12월 3일

이상은 태항산기슭에 위치한 하북성 원씨현에서 발간되는 간
행물 《백화원》1982년 제1기에 실린 나의 편지다(제목은 편집부에
서 단것이다.)

그때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어제 즉 1984년 6월 22일에 나는
료녕성에서 사업하고있는 옛전우 한청한테서 한통의 편지를 받았
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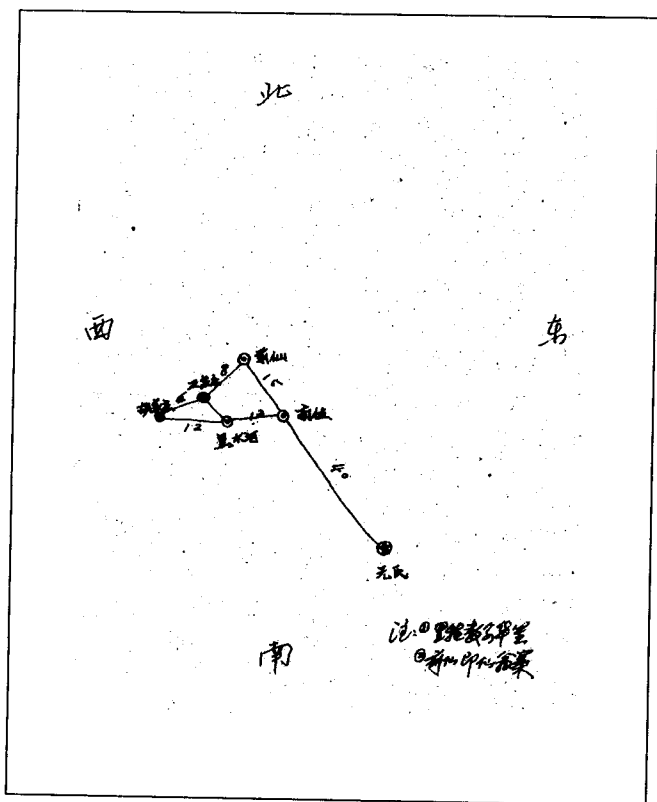
...이번에 나는 혼자서 동무들의 옛 싸움터—호가장을 찾아가
보았소. 당시 동무들과 협동작전하던 팔로군의 한 중대장이 아직
살아있어서 나를 반겨맞는데 그 첫마디가

《어째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 40여년동안에 여기 묻힌 전우
들을 찾아보는이가 한분도 없었으니 웬 일입니까? 당시의 조선의
용군동지들이 아직 그래도 더러는 살아계시겠지요?》

나는 말문이 막혀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얼버무려
넘길수밖에 없었소. 그 옛 중대장이 속으로 우리 조선동지들을 얼
마나 무정하다고 생각했겠소? 나는 부끄러워서 등골에 식은땀을
흘렸소.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 의리없고 량
심없고 도덕없는 인간들이 아니요? 항일로간부! 생각만 해도 낮이
뜨뜻해나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리이역에서 목숨을 바친 지하
의 전우들을 대할 면목이 있소, 없소? 그들은 다 총각의 몸으로
죽었소. 다들 대가 끊어졌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처자식 거

느리고 손자손녀 앞에 두고... 이렇게 편안히들 잘살고있소그려!
 그들의 무덤이 보잘것없는 태항산구석에 처박혀있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어느 명승고적 같은데 있었다면 이 지경이야 아니였겠지?
 슬픈 일이고 가탄할 일이요....

나는 《백화원》편집부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그려보내온 략도
 에다 다음과 같이 기입해 보내었다.



죄수복에 얹힌 사연

이전에 일본감옥에서는 미결수에게는 하늘색의 죄수복을 그리고 기결수에게는 붉은 벽돌빛의 죄수복을 입혔다. 기결수중에도 하늘색죄수복을 입은것이 더러 있기는 하였는데 그것은 《모범죄수》에게 한하여 베풀어지는 특전 즉《영예복》이었다. 그보다 더 높은 《최고영예복》은 흑, 백 두가지 실로 섞어 짠 《시모후리(霜降)》였다.

지난 60년대와 70년대의 그 유명한 무법천지통에 내가 갇혀있던 추리구(秋梨沟)감옥에서는 일률적으로 회색죄수복을 입히는데—일본감옥에서 번호표를 다는것과는 달리—거기서는 죄수라는 뜻의 《범(犯)》을 흰 뺨끼로 또는 붉은 뺨끼로 더덕더덕 찍은것

을 입혔었다.

내복은 일년에 런닝샤츠 하나와 뺨츠 하나밖에 내주지 않으니까 여벌은 다 집에서 갖다 입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옥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있는 놈은 별문제가 없지만 옥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없는 놈은 그 곤난이 말이 아니었다. 알몸뚱이에 헐렁헐렁한 죄수복을 그대로 걸치고 다니는 놈까지 있는 형편이었다.

감옥에서는 어쩌다가 영화를 돌려도 죄수의 탈옥하는 장면 같은것은 의례 카트를 하기 마련이었다. (죄수들이 그 본을 따서 도망을 칠가봐.) 《꽃파는 처녀》라는 영화를 나는 본적이 없지만 거기에도 아마 탈옥하는 장면이 있는 모양이었다. 추리구감옥에서 돌릴 때는 그 대목을 카트하였다고 선배죄수들이 서로 지껄이며 비웃는것을 발언권없는 후배죄수인 나는 옆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삼가 들은적이 있었기에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카트를 하여도 탈옥사건은 심심찮을 정도로 늘 있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옥당국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였다.(참으로 골머리 아픈 노릇이었다.) 죄수복과 내복들에 전부 뽕끼로 《범》자와 입은 놈의 이름, 죄명, 형기들을 밝혀 쓰기로 한 것이다.

범 - 현행반혁명 - 10년 - 김학철

옥스포드대학의 명예철학박사의 칭호도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 그리 보기 좋을것이 없겠는데 하물며 반혁명 운운을! 생각들 좀 해보시라, 이 김학철이의 몰골이 어떠하였겠는가!

그런데 바깥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옥안에서도 《극단주의》가 판을 치는 바람에 마침내는 런닝샤츠, 뺨츠나부랭이에다까지 《범》, 《아무개》, 《현행반혁명》 또는 《력사반혁명》, 《19년》 또는 《20년》... 이따위로 써놓게끔 되였었다.

말을 참지 못하는 나의 《동범(同犯)》 즉 《감옥동창생》 하나

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제기, 어느 미친 놈이 맨 뽀빠바람으루 도망질을 칠라구!》

한마디를 뇌까렸다가 《반개조(反改造)분자》로 몰리어 학질을 맨 일까지 있었다.

《장춘문예》 85년 3기에 실린 졸작 《죄수의사》의 주인공 《장춘생》이는 나의 《추리구감옥 동창생으로서》 본명은 류사곤—구태현사람이었다. 이 류사곤이도 속옷형편이란 말이 아니여서 차마 눈뜨고 보기가 구차할 지경이었다. 딱하게 여긴 나머지에는 나는 여벌의 메리야스내복 하나를 남모르게 던지시 꺼내다주면서 신신당부를 하였다.

《류사곤, 너 이거 속에다만 입어라. 아무한테두 보이지 말아. 알았니? 괜히 또 누구 벼락을 맞히지 말구.》

감옥에서는 죄수끼리 무슨 물건을 서로 바꾸거나 주고받는것을 엄금하였었다. 무슨 꿈꾸이를 할가봐서였다.

하건만 워낙 정신이 부실한 류사곤이는 얼마 아니하여 나의 그 신신당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말았다. 어느날 수십명의 죄수들이 움을 파는 작업을 하는데 개밥에 도토리로 류사곤 이 녀석도 끼여들었었다. 그런데 한바탕 신이 나게 삽질을 하다가 땀이 나기 시작하니가 그 녀석은 곁에 입었던 죄수복을 훌러덩 벗어버리는 것이었다. 멀찌감치에서 그 자식의 하는 꼴을 바라보다가 나는 대번에 숨을 들이그었다. 원새끼를 꼬았다. 손톱여물을 썰었다.

(아이구 하느님맙소서! 저런 망할 자식 좀 봤나!)

그 녀석이 입은 남색 메리야스내복에는 흰 뽀끼로 뚜렷하게

《범-현행반혁명-10년-김학철》

이렇게 찍여있지 않은가!

눈치 빠른 간수가 이것을 발견하기가 무섭게 외마디소리를 냈다질렀다.

《도대체 이 중대엔... 김학철이가 몇개야!》

류사곤 이놈은 끝내 내게다 벼락을 맞혀주고야 말았다.

나는 툭툭히 야단을 맞고 그리고 시말서까지 써바쳤다—《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류사곤이는 본시 누구나 다 호의로 치는 인간이었으니까 꾸지람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그때부터는 도리어 드러내놓고 그 《김학철 또 하나》의 메리야스내복을 입을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몰수하면 류사곤이가 알몸이 된다는것을 간수도 다 알고있었으므로 크게 선심을 써서 그대로 눈감아주었던것이다.

이듬해 봄, 새 죄수복들을 타는데 류사곤이한테도 물론 례의 없이 한벌이 차례졌다. 그 녀석은 새옷 한벌을 얻어입고 좋아서 입이 함박만큼이나 벌어졌었다. 그런데 어떡허다 호주머니에 손을 들이밀어보더니 그 녀석은

《이?》하고 괴상한 얼굴을 하면서 손에 잡히는 종이쪽지 하나를 꺼내드는것이였다. 네모나게 접은것을 펼쳐들고 들여다보니 무슨 글자가 적혀있기는 하나 워낙 까막눈이라 알수 있어야지!

《여보 김학철, 이거 좀 봐주우... 뭐라구 적혀있소?》

류사곤이는 내가 신문을 보는것을 여러번 본 까닭에 나를 소학졸업정도의 지식을 갖고있는 사람으로 짐작하였었다. 내가 그 쪽지를 받아서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그리 잘 쓰지 못한 한문글자로 적혀있기를—

《친애하는 아들이, 이 엄마가 지어보내는 이 옷을 입고 개조를 잘하여라.》

내가 그 쪽지를 손에 든채 양천대소를 하니 다른 죄수들이 무슨 일이 났나 하고 모여들면서

《무슨 일이야?》

《뭐라구 적혔기에?》

입입이 한마디씩 묻는것이였다. 내가 웬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는 류사곤이의 밤송이같은 머리를 한번 툭 때리고나서

《이 자식이 엄마가 생겼어. 수양엄마 하나가 생겼단 말이야.》하고 떠드니